



게링 로페즈 갤러리의
샌드라 게링

나는 미술에서 우리의 시대를 발견하였다

샌드라 게링(Sandra Gering)은 뉴욕 미드타운에 위치한 게링 로페즈 갤러리(Gering Lopez Gallery)의 소유자이자 뉴욕 미술계의 권위 있는 아트 딜러로 손꼽힌다. 그녀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KAWS, 자비에 베이앙과 같은 작가를 키우고 있고 제프 쿤, 카림 라시드, 피터 할리 등 수많은 컨템퍼러리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 작품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카리스마 넘치는 갤러리 경영, 지혜로운 감각과 세련된 마음의 눈을 가진 아름다운 미술 수집가, 샌드라 게링을 만났다.

갤러리를 운영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려서부터 항상 음악, 미술, 무용을 좋아했습니다. 16세 때, 고향인 워싱턴 D.C에 있는 필립스 컬렉션을 보러 다니곤 했고, 19세 때쯤 언젠가 나만의 갤러리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지요. 저는 4년째 치과 위생사로 일하고 있었고 21세 되던 해에 아버지의 권유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22세였어요. 자기 자신과 경력 개발을 우선시하는 요즘 여성에 비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셈이죠. 뉴욕으로 와서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2명의 아들, 크레이그(Craig)와 브렛(Brett)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이혼한 1985년, 드디어 이제껏 접어왔던 제 꿈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키스트 빌라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추상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렇게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죠.

처음 갤러리를 열었을 때 시작은 어떠셨나요?

네, 저희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던 좋은 친구이자 작가인 제인 로게먼(Jane Logemann)을 통해 모마(Museum of Modern Art)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작가 로버트 라이먼(Robert Ryman), 대통령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브론즈 조각상 작품으로 유명한 마크 멜론(Marc Mellon) 등 다양한 작가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멜론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지인들 사이에서 '샌드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 미술계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회자되도록 제 정식 이름인 '샌드라'로 고쳐 쓰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당시 저는 웨스트 빌리지의 북층 구조에 정원이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멜론 씨가 유명 컨템퍼러리 작가인 산드로 차(Sandro Chia)가 살던 집을 제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고 한눈에 반해 현재까지 살고 있지요. 이 집의 정원에서 작가 2명의 아름다운 결혼식도 올려주었고, 이 집 전체를 사무실과 갤러리 삼아 작품을 전시하고 여러 차례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래도 미술과 그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이들이 모이도록 하는 기가 충분한 듯합니다.

현재의 저택을 갤러리로 운영하던 때의 에피소드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1988년 12월, 로버트 라이먼(Robert Ryman),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로버트 라우션버

그(Robert Rauchenberg), 윌리엄 아나스타시(William Anastasi), 존 케이지(John Cage) 등이 참여한 '하우스 전시'를 이곳에서 열고 호평을 받았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재능 많은 여성 작가 재닌 안토니(Janine Antoni)를 만나 대량의 돼지기름, 초콜릿 등을 주제로 하는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설치작품들이 포함된 전시도 이 거실 공간에서 열었어요. 특히 <릭 앤 래더(Lick & Lather)>가 인상적인데 272kg가량의 초콜릿과 같은 양의 돼지기름을 사용하여 6개의 초콜릿 두상과 같은 수의 비누 두상 조각을 만든 다음, 작가가 직접 비누 두상으로는 몸을 씻고 입으로는 초콜릿을 모두 빨아낸 작품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자 하는 여성들의 거식증을 풍자한 것이지요. 그런데 초콜릿으로 만든 안토니 조각품의 향이 좋았는지 정원에서 놀던 다람쥐가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다람쥐는 안토니의 초콜릿 작품 일부를 갉아 먹고 부스럭거리는 잔뜩 소파 위에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는데, 결국 초콜릿 조각의 손상된 부분은 안토니 씨가 와서 복구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당시 퍼포먼스의 일부로 비둘기 2마리를 집 안에 자유로이 풀어두었는데, 그중 1마리가 제스퍼 존스의 <과녁> 작품 위에 실례를 하고 말았어요. 저희의 이런 전위예술(Fluxus)이 이제 컨템퍼러리 미술사의 일부가 되었고, 모마의 P.S.1이 당시의 사진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 자택 거실에서의 샌드라 게링 여사. 뒤에 보이는 작품은 피터 할리의 <파피즘(1998)>이다.
2 좌측에 보이는 기차 객실 모형은 제프 쿤의 작품이고, 우측 벽면에 걸려 있는 작품은 크레이그 카우프만의 <우제(2001)>이다.





1 'Chum', KAWS, Painted fiberglass, 228.6×137.1×76.2cm, series of 6 unique colors, 2008. Image courtesy of Gering & López Gallery, NY.

2 'Perils', KAWS, acrylic on canvas, 172.7×218.4cm, 2008, Image courtesy of Gering & López Gallery, NY.

3 'Make My Burden Lighter', Todd James, installation view, 2010, Gering & López Gallery, New York, NY.

현재의 미드타운 갤러리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1991년에 소호로 이사 와서 10년간 있다가 2001년 첼시로 옮겨왔습니다. 당시에는 미술시장 전체가 첼시 구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였지요. 2003년 뜻밖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하비에르 로페즈(Javier Lopez)를 만나 갤러리 운영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드디어 현재의 미드타운 5번가와 57스트리트에 정착해 '게링 로페즈 갤러리'를 열게 된 것이지요.

갤러리 위치 선정에서 첼시보다 미드타운을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미드타운이 제 분위기와 개성에 맞는 것 같아요. 첼시는 너무 상업적이고 어수선하고 또 거칠어요. 400여 개의 갤러리가 모여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첼시 갤러리를 방문하지만 대부분 1층에 위치한 유명한 갤러리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반면 미

드타운은 뉴욕의 성장 역사와 문화가 현대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참 아름다워요. 매리언 굿맨(Marian Goodman) 갤러리나 페이스(Pace) 갤러리들도 다 이곳에 있고, 저 또한 미드타운이 고객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훨씬 이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드타운으로 이사 온 이후 갤러리 사업 규모가 3배 정도 확장되었습니다.

미술품 수집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제프 쿤(Jeff Koons)이나 피터 할리(Peter Halley)와 같은 네오지오(Neo-Geo) 그룹과 친분을 쌓은 1985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제프 쿤 씨와는 지금도 우정을 나누는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소장하신 작품 중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오래된 소장품은 존 케이지가 1983년에 그린

〈료안지(Ryoanji)〉 드로잉입니다. 교토의 정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이지요. 가장 최근 구매한 작품은 토드 제임스(Todd James)의 드로잉입니다. 제임스의 작품은 정치적이지만 재치가 넘칩니다.

대략 몇 점을 소장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작품을 컬렉션에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드로잉, 회화, 조각과 가구 디자인 작품 등 약 200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컨템퍼러리 미술의 대가들인 피터 할리, 제프 쿤, 존 케이지, 카림 라시드 등의 작품을 비롯하여 KAWS,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 리오 빌라리얼(Leo Villareal) 등과 같이 저희 게링 로페즈 갤러리에서 선보이고 있는 컨템퍼러리 작가들의 작품도 기본적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의 작품과 대가의 작품을 고루 소장하고 계시네요.

저는 작품을 선정할 때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의 작품과 그것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 우연적 요소와 팝과 같이 미술 사조에 기반을 두되 21세기란 시대에 맞게 재현한 키치 작품을 좋아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지원합니다.

디자인 아트 작가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시고 계신데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디자인 아이템이 아닌 미술작가가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에 두었을 때 스스로 아름다움을 발하는 '디자인 아트' 작품을 좋아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디자인과 아트가 결합한 디자인 아트 작품이 최상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품을 좋아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산물이며, 이 시대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들도 대부분 '이 시대에 관한 작가들'입니다. 저는 작품을 만나면 마음으로 느낍니다. 한눈에 반할 때, 바로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본능으로 미술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제가 지





1 벽면에 걸려 있는 리오 빌라리엄의 작품과 카림 라시드의 테이블에 사용된 소재야말로 동시대적이다.
2 좌측부터 마이클 스콧, KAWS, 카림 라시드, 피터 헬리의 작품이다.
3 카림 라시드의 <오라 커피 테이블(1990)> 개링 여사가 소장한 것이 유일 에디션이다.
4 개링 여사 뒤쪽으로 보이는 작품은 존 F. 사이먼 주니어의 <한없는 은혜(2005)>로 미디어 작품이다.
5 제프 쿤의 작품 <짐 밤-전망차(1986)>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재료로 제작되었다.

급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제 자신을 꼬집어봅니다. 제 꿈이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요.

카림 라시드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 아트 작가를 발굴하고 키우셨는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로버트 스타들러(Robert Stadler)나 로버트 라디(Robert Rudi)의 라디 디자인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 시대의 재료인 플라스틱, 알루미늄, 티타늄, 파이버글라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작품들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를 대표하는 것들이죠. 나무로만 가구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술품과 함께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술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미술은 내 안에서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또 미술은 그 래야 합니다. 미술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 장소와 그 시간에 대한 결정체가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의 우리는 이를 계승할 뿐이지만, 미술은 불멸이며 또 영원히 살아 인류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소장하고 계신 작품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일한 에디션으로 만든 카림 라시드의 테이블은 모마(MoMA)에 기증할 생각이었고 그 외의 컬렉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이야말로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그들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창조물입니다.

지금 당장 100만 달러와 100달러의 예산이 있다면 어떤 작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100만 달러는 100달러는 재능 있는 작가의 첫 개인전을 찾아가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초기의 작품을 사겠습니다. 저는 신인 작가의 첫 개인전이라도 작품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우면 그 가치는 무한한 것이니까요. 미술 작품을 구매할 때는 남이나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여성이시니까 혹시 여성 작가에 대해 어떤 특별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미술에서 작가의 성(性)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과 같은 여성운동을 하나의 사조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저는 결코 미술을 성과 관련시키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적인 스타일과 패션 센스를 자랑하십니다. 어떻게 안목을 기르셨나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사교'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활동의 일부로 파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파티에서 돋보이려고 드레스를 사기 위해 어머니와 쇼핑을 갔습니다. 미니멀한 형태의 분홍색 드레스를 발견하고는 한눈에 반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말리셨어요. 결국 아버지

께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은 뒤 제 눈에는 너무나 참하게 보인 그 드레스를 16달러에 사게 되었죠. 그리고 파티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스타일의 학생용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만 다른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왔던 거죠. 당시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 저는 제 안에 패션리스타로서의 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후년에 70세가 되지만 그래도 항상 '쿨'한 스타일을 즐겨 입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어머니로서 가족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 아들들도 미술을 참 좋아합니다. 큰아들 크레이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영화 작가와 감독을 기르는 에이전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크레이그는 영화 비즈니스계의 유평주를 양성하고 있으

니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둘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크레이그는 미술품을 사기 전 저에게 이력서처럼 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반면 작은 아들 브렛은 CNN과 블룸버그를 거쳐 현재는 미술 잡지 <아트 포럼>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저에게 미술품 구매 관련 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종종 작품을 구매합니다. 둘 다 제 아들이지만 작품 구매에 있어서는 엄연히 저의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따로 할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미술품 딜러로서, 갤러리 소유자로서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성심껏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과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길 바랍니다. 작가는 소통을 위한 혈판과 같습니다. 타인의 조언에도 귀 기울일 줄 알며 자신의 핵심을 찾아 이를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미술품 수집을 시작하는 분들께도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재차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좋다고 했거나 좋아해야 한다고 들은 것이 아닌 진정 자신의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작품을 수집하세요. 많이 보시고 많이 배우며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

인터뷰를 한 강희경(Christina H. Kang)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 컨설턴트이자 미술 교육 사업가이다. 예술이 있고 또 예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달러가는 열정적인 미술 전문가다. 강희경은 현재 뉴욕 패러다임아트컴퍼니의 대표로서 아트 비즈 워크숍, 아트 앤 레스토랑, 아트 앤 컬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